

일본에서의 중국산식품 잔류농약률

중 국산 식품의 잔류농약 등이 가끔 일본의 수입검사 기준치를 넘은 것에 대해, 일본 매스컴에서의 보도가 과열양상을 보인적이 있다. 그러나 기준치를 넘은 식품이 과연 중국산뿐일까? 일본의 수입식품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냉정하게 분석한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의외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06수입식품 규정위반 등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중국산이 가장 많은 530건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미국 239건, 베트남 147건, 태국 120건, 에콰도르 69건, 가나 62건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위반·초과사례의 절대수치다. 위반·초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면 결과는 크게 바뀐다. 기준치 초과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가나로 8.79%이다. 그 다음이 파라과이 3.98%, 에콰도르 3.91%, 베네수엘라 1.05%, 베트남 0.35%, 중국은 상위 10개국에 들지 않는다. 실제로는 중국산 식품의 규정 위반·기준치 초과율은 0.09%로 매우 낮고 2005년도의 0.07%와 별로 차이가 없다. 미국의 0.12%보다 매우 낮다.

중국산 식품의 문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수입량이 매우 크고 검사대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06년에는 중국산식품 91,200건이 일본의 관련 부문에 의한 검사를 받은 반면, 가나산은 60건, 에콰도르산은 340건에 지나지 않았다.

2007년도의 규정위반·기준치 초과율은 아직 통계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후생노동성 감시안전과 관계자는 「상황은 작년과 대체로 비슷하다」고 이야기 한다.

기준치 초과 사례가 많으면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일종의 오해다. 2007년 7월에 横浜市의 중학교 급식에 나온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살충제의 일종인 펜프로파스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으로써 해당 제품은 즉시 사용중지 되었지만, 실제 잔류량은 0.02ppm이고 이는 일본의 기준치를 0.01ppm 초과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펜프로파스린은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는 많은 채소에 사용되고 있다. 토마토나 가지에도 사용되고 있어 잔류기준치는 수입목이버섯의 200배이다. 일본 가지에서는 중국산 목이버섯의 90배의 농약검출 된 것도 시치미 댄 얼굴로 일본의 식탁에 오를 것이다.

유해물질 없애는 조리의 테크닉

농 약이 전혀 없는 채소나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식자재 만을 먹는 것

은 간단하지 않다. 손이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든다. 어떻게 하면 입에 들어가는 양을 줄일까? 조

리의 방법과 나름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음식의 안전전문가에게 들었다.

누구라도 간단하게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해야한다. 잘 씻고 껍질을 벗기는 등 기본적인 일뿐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하면 위험성을 깨끗이 줄일 수 있다. 안전한 음식을 손에 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식자재의 선택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택방법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유기식품만이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부자 밖에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최근에 들어온 것이라도 농약을 줄이면 괜찮다. 채 3분도 걸리지 않는 사람의 수고로 대부분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

원나와 햄은 색소 등 유해물질이 많기 때문에 먹이지 않는다는 엄마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뜨거운 끓는 물에 넣었다 꺼내는 간단한 수고를 통해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가공품이 된다. 단 15초만 에너지를 주면 아이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간 고기도 자루에 넣어서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또는 삶으면 더 효과적이며 농약을 포함한 지방이 제거된다. 오이를 소금으로 판에 굴려 간이 배게

한다든가 조림을 정성껏 하는 등 옛 할머니 지혜와 같은 것은 실은 안전한 음식 만들기에도 통하는 것이다. 옛날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사람의 노력을 또한 아끼워해서는 안된다.

농약은 씻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괜찮다. 살균제 등은 표면에 붙는데 씻거나 껍질을 벗기면 너무 걱정할 것이 없다. 농약이나 오염물이 묻어 있는 외측의 잎이나 껍질은 벗긴다. 비벼서 씻는다. 이것이 채소의 기본이다.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껍질을 벗길 수 없는 체리는 또한 먹을 수 없는 것인가?” 등의 질문이 반드시 나온다. 농약으로 몸이 이상하게 되거나 체리를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지갑이 칼라로 되거나 더 이상한 것이 되어 버린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는 편이 좋다.

일본에 사는 한 100% 안전한 식생활은 무리이다. 그렇지만 80% 농약을 제거할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되는 것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 즐겁게 웃음 있는 식탁을 연출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는 제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측면에서 바라본 빈곤과 격차

빈곤과 환경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다. 실은 훨씬 전부터 세계의 빈곤 문제와 환경문제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1992년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 지구 서밋(Summit)의 테마는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 개발)’이었다. 지금의 개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깐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서로 토론하자」라는 주제에 사상최대의 150개국을 넘는 국가가 모였다.

실은 이 'Sustainable Development'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 것은 1987년도에 발표된 보고서 'Our common future(우리들 공유의 미래)' 로부터이다. 이 보고서는 제1회 지구 서밋 1982년도에 유엔 나이로비 회의에서 일본에 의하여 제안되어 인권존중의 시조인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란트 여사가 단장을 맡은 브룬트란트 위원회(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5년동안 조사하여 제출했다. 이후 2회나 지구 서밋의 테마는 이 'Sustainable Development' 였다. 1972년의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로부터 시작되었고 세계가 환경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온 역사는 30년이 되는데 그중 20년간은 '환경은 남북격차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였다.

그것은 이렇다. 선진국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생기는 환경부하가 지구에 영향을 끼쳐 그 악영향이 지구상의 여기저기에 와 있는 그것이 환경문제의 본질이다. 이 구도가 세계의 공통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도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라이프스타일 변경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고 싶은 개발도상국은 우선 살아남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현실에서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다. 동조할 수 없다. 그러면 선진국이 아무리 환경에 노력하여도 쓸데없는 노력이 되어 버린다.

■ 모두가 지금의 라이프스타일로 지내기 위해서는 지구 몇 개 필요

생태학적 발자국이라는 단위가 있다. 이것은 인간활동에 의하여 소비되는 자원량을 분석·평가하는 수법의 하나로서 '지구 몇 개분' 이라고 나타

낸다. 1970년의 인간의 활동은 지구 0.8개분이었지만 지금은 지구 1.2개분으로 오버하고 있다. 이것이 폐해의 원인이다.

만약 온 세상 사람들이 미국식 라이프스타일을 고집할 때 필요하게 되는 지구는 무려 5.6개, 일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집한다면 필요하게 되는 지구는 2.7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라이프스타일을 목표로 하여 경제발전을 하려고 한다. 목표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 전체가 큰 일이 난다. 지금 중국과 인도가 눈부시게 경제발전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환경부하가 방출되고 있다. 그 부하는 자국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미친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고 공기도 물도 새도 물고기도 허리케인도 국경의 통관 수속으로 멈출 수 없다.

이제까지 차를 타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억 단위의 사람으로 가솔린차에 일제히 타게 되면서 CO₂를 배출한다. 외화를 벌기 위하여 열대우림을 광범위하게 모두 벌채하고 단일작물의 플랜테이션을 만들어 광범위하게 농약을 살포한다.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광범위하게 화전을 한다.

현지주민의 건강 피해만이 아니고 원시림이나 열대우림, 광범위의 삼림이 손상되는 것은 지구전체의 생태계 시스템이 무너져 피해가 지구전체에 퍼져나간다. 온난화방지, CO₂ 삭감의 관점에서는 물론 그 이상의 생물다양성, 지구 생태계의 보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목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솔선하여 선진국이 그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세계 각지의 농업문화 사정

농업문화 중 3개의 윤리관이 살아 숨쉬는 세계 각지의 실천에 대해 알아본다.

【쿠바】

조금 변화한 사례는 농업의 후퇴를 강요당한 쿠바이다. 1989년도에 구 소련이 붕괴됐다. 그리고 미국의 수출입 금지조치도 계속 되었기 때문에 쿠바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화석연료의 수입이 끊겼다. 이것이 계속되어 「특별한 시대」의 하바나(쿠바 수도)는 50km권내의 지역에서 이 수도가 필요로 하는 식품의 80%를 조달하는 방법을 배웠다. 모든 종류의 채소밭이 옥상, 주차장, 미사용 공지 등으로 확대되었다.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는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지하는 방법은 유기재배로 대체되었다. 그 과정에서는 가족의 이용이 다시 추진되어 창의적인 연구에 높은 가치를 두어 농업문화 디자이너 기술이 높이 평가되게 되었다. 쿠바는 이렇게 보다 유연성 있는 사회로 변화하여 갔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변화를 강요당한 그 노고는 정말로 피로운 것이었다. 현재는 의사나 교사를 파견하는 대가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어 다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변혁은 보다 바람직한 변화인 것이 증명되어 그 대부분이 지금도 뿌리 내리고 있다. 이 쿠바의 경험을 그린 단편 영화 「The Power of Community」가 세계에서 상영되고 있다.

【네팔】

영국의 농업문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랫동안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에반스의 네팔에서의 활동을 알아본다. 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여기에서는 노동인구의 90%이상이 농업에 의존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그의 이메일에 적혀 있었다. 여기에서 농업의 방법은 지역의 기후와 지형과 사람들의 요구에 잘 적응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것은 산림이나 그 외의 자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음식물, 연료, 사료, 목재, 약품 등 기본적인 것을 입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농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산림 벌채가 이루어져 그것이 원인이 되어 토양유출이 일어났다.

히말라야·농업문화그룹(HPG)는 네팔의 중서부에 있는 현지의 작은 조직으로 모델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새롭게 농지를 개간하지 않고 수확량을 증수하는 방법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방법을 실험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HPG 운영결과는 매우 유망한 것이다. 그 방법의 일부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문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델로서 확대하고 한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레벨에서도 응용이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네팔의 잠정정부는 50년간 압정과 부패와 혼란으로부터 해방하여 새로운 개방된 스타일의 개발로 진행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 재정, 천연자원을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